10.15686/fkl.2026..67.204

‘최초의 여성’에 대한 담론과 수사 분석
-1960~1990년대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의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상투적 수사로 여성의 성향·특성 고정하기
2.1 상투적 수사 분류 방법
2.2 ‘최초의 여성’의 수사적 특징
3 전통의 시선으로 여성의 역량을 축소하기
3.1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아내·딸
3.2 공적 역량을 가정의 역할로 치환하기
4 남성 표준으로 여성을 담론화하기
4.1 남성 독점과 여성 배제의 정당화
4.2 남성에게 허락받는 여성의 위치성
5 여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양가성과 딜레마
6 결론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논문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최초의 여성' 관련 기사 188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시기 언론이 여성의 공적 성과를 어떠한 수사적 전략으로 재구성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 주체성이 어떻게 배제되고 왜곡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문제는 과거의 것만이 아니다. 조연하·김경희·정영희(2006)는 2005~2006년 지상파 뉴스 179건을 분석하여 '여성 1호' 보도가 성과보다는 성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가지며 여성의 성취를 일회성 사건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 허명숙(2007) 또한 전문직 여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능력보다 성별 특성을 강조하며 여성을 주변적 존재로 위치 짓는 방식을 반복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2] 이러한 연구들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언론의 여성 담론이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60~1990년대 조선일보 기사를 분석하여 현대까지 이어져 온 '최초의 여성'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된 담론이 어떻게 유지되고 확산되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조선일보를 선정한 것은 조선일보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당시 언론의 지배적 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사회적 영향력과 연구 자료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페어클로우(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론은 언어를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로 파악하며 텍스트 기술, 해석, 사회적 설명의 세 층위를 통해 담론이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한다.[3]

---

1 조연하·김경희·정영희, 「'여성 1호'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보도의 프레임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7권 2호, 2006, 166-195쪽.

2 허명숙, 「전문직 여성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7권, 2007, 5-45쪽.

3 Norman Fairclough, 김지홍 역, 『담화 분석 방법』, 경진, 2012, 17쪽.

2 상투적 수사로 여성의 성향·특성 고정하기

2.1 상투적 수사 분류 방법

조선일보가 '최초의 여성'을 기사화할 때 여성의 성향과 특성을 고정하는 상투적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반복적[4]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사들이 언론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될 때 사회적 의식과 시각을 반영하는 동시에 해당 담론을 재구성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수집된 상투적 수사는 다섯 가지 특성으로 분류된다. 첫째 '만들어진 여성의 전형적 성향', 둘째 '만들어진 여성의 전형적 역할', 셋째 '주체적 행동에 대한 평가', 넷째 '성취와 능력의 성별화', 다섯째 '대상화된 외적 묘사'이다.

전체 기사에서 위의 분류에 해당하는 상투적 수사는 총 272회 나타난다.[5] 주목할 점은 기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유형의 수사가 예외 없이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 유형의 수사도 현저히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시기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은 1960년부터 1999년까지 약 40년간 기사의 질적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6]

2.2 '최초의 여성' 수사의 특징

수집된 상투적 수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취와 능력의 성별화'이다. '여류', '여풍', '맹렬여성', '여판사', '여기자', '여박사', '여성답지 않은 군무', '여류우주인', '처녀경관'과 같은 표현은 개인의 성취와 능력에 성별을 덧씌

4 본 논문에서 분석한 사례들은 지면의 한계상 일부에 한정되나, 해당 수사적 특징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추가 사례는 김의진, 앞의 석사논문 참조.

5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성취와 능력의 성별화'가 25.37%(69회)로 가장 높고, '대상화된 외적 묘사'가 24.26%(66회), '만들어진 여성의 전형적 성향'이 20.22%(55회), '만들어진 여성의 전형적 역할'이 16.54%(45회), '주체적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13.60%(37회) 순으로 나타났다.

6 담론 유형별 기사 분포 및 표현 목록 등 상세 통계는 김의진, 「'최초의 여성'에 대한 담론과 수사 분석: 1960~1990년대 조선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참조.

워 젠더화하는 수사로, 직업적 전문성을 성별 범주 안에 가두는 효과를 낳는다. 서울지하철 5·7·8호선 여성 기관사 17명을 다룬 기사에서 조상호 승무처장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친절로 철도업계가 갖고 있는 딱딱한 이미지를 부드럽게 해줄 것"[7]이라고 기대를 표명한다.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도의 전문직인 기관사의 역할이 '이미지 개선'이라는 부수적 기능으로 축소되는 동시에, 17명의 여성 기관사 중 어느 누구의 직접적 발언도 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된 채 남성 관리직의 시선만이 그들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만들어진 여성의 전형적 성향'을 고정하는 수사에는 '특유의 섬세함', '꼼꼼함', '온화한', '부드러운', '차분한', '인자한', '겸손' 등이 포함되었다. 이때 '여성 특유의'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기사에서 언급되는 '여성 특유의' 특성들은 '모든 여성이 특히 갖추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미덕에 해당한다. 최초 여성 외교관 김경임을 다룬 기사는 그의 협상 능력에 대해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 속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설득력"으로 묘사한다.[8] 그러나 뛰어난 설득력과 자신감 있는 화법은 김경임 '특유'의 개인적 역량이지 '여성 특유'의 것으로 일반화될 수 없다. 이때 개인의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일부 특성만이 선별적으로 부각되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실질적 역량은 간과된다.

'만들어진 여성의 전형적 역할'을 고정하는 수사로는 '좋은 어머니', '착한 아내', '홍일점', '가정주부', '현모양처', '이웃 아줌마', '딸 같은', '여인다운 여인', '꽃 역할', '조용히 경청하는', '삼종지의', '모범주부' 등이 있다. 우체국장 박선덕을 "10만 주민의 친절한 이웃 아줌마"[9]로 표제화한 기사나, 최초 여성 선원의 성과를 "선상 분위기 조성, 화합 조성 등 여자 선원으로서의 장점"[10]으로 설명

7 최원규, 「여성파워…전동차도 운전한다」, 『조선일보』, 1996.01.21. 조간 31면.

8 오중석, 「"부드러운 외교(外交)로 한몫해요" 주일(駐日)대사관 3등서기관 김(金)경(瓊)임(任)씨」, 『조선일보』, 1981.08.23. 조간 10면.

9 「10만 주민(住民)의 친절한「이웃 아줌마」정릉(貞陵) 우체국장 박선덕(朴善德)씨」, 『조선일보』, 1982.03.07. 조간 6면.

10 「국내 첫 여성선원(船員) 3명 탄생」, 『조선일보』, 1985.11.20. 조간 11면.

하는 기사는 여성의 직업적 성취를 전통적 성역할로 환원함으로써 전문적 역량의 평가를 차단한다.

'주체적 행동에 대한 평가' 유형에서는 여성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이를 비정상화하는 수사로 '억척이', '독기', '오기', '여성답지 않은', '방탕', '입긴 쎈', '살아남은 독종', '별종', '거친', '고집', '굳은 인격' 등이 수집되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성은영을 다룬 기사는 그를 "남성 얼차려 주는 맹렬 여성"[11]으로 표제화한다. 성은영은 서울산업대 산업안전공학과 출신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자 스스로 건설현장을 택한 인물이다. 기사는 그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남성 노동자들에게 '얼차려'를 준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그를 전통적 여성성에서 벗어난 사납고 센, 유별난 인물로 묘사한다. 또한 기사는 그가 "섬세함은 여성만의 강점"이라고 말한 부분을 부각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전관리 직무를 여성의 섬세함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의 역량을 축소한다.

수집된 '대상화된 외적 묘사'에는 '가느다란 얼굴', '앳되어 보이는',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서글서글한 눈', '검은 망사그물', '금발미녀', '용모는 좋게 생겼으나', '아이샤도우', '얄팍한 입술', '알루미늄 브래지어', '살결이 고운', '외모에 무신경', '멋만 부릴 줄', '불끄는 미녀' 등이 있다. 대상화된 외적 묘사의 반복은 여성의 "특정한 면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현실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12]

이러한 언론 담론은 '사회적 시선 의식-여성 자기 소외-언론의 재구성-전형적 여성성 강화'의 끊임없는 순환으로 이어지며, 여성의 주체성을 약화하고 전통적 여성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적·담론적·규범적 외부가 여성을 바라본 시선을 내면화하고 수용하는 존재"[13]가 되며 최초 여성 개개인의 고유한 성취는 전형화된 여성 이미지 속으로 잠식된다.

---

11 이광희, 「남성'얼차려'주는 '맹렬 여성'」, 『조선일보』, 1997.03.17. 조간 20면.

12 Robert M. Entman,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ume 43, Issue 4, 1993, 51-58쪽. 조연하·김경희·정영희, 앞의 논문, 182쪽 재인용.

13 박영진,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고, 2022, 9쪽.

3 전통의 시선으로 여성의 역량을 축소하기

3.1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아내·딸

'최초의 여성' 관련 기사에서 강조되는 여성성은 실재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지고 강요되는 일련의 속성이다. 일본이 핵가족 중심의 근대 국가 시스템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성역할 분담론을 지배 담론으로 삼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와 전후 사회 재건의 목표 아래, 현모양처 담론이 '국가의 성별 윤리'로 정착되었다.[14] '초남성주의적 발전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 아래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며 요구되는 성별 윤리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손에 쥐었고[15] 여성은 현모양처 담론에 부합하는 행실을 통해서만 인정받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여성의 노동과 희생을 '원래 그러한 것'으로 자연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으며, 그것이 곧 '여성다움'의 본질인 것처럼 내면화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적 실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떠올리는 '전통적 여성상'과 그 실제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에 대한 호칭을 분석하면 이것이 극히 단편적인 이해임이 드러난다. '여사(女士)', '여중군자(女中君子)', '여걸(女傑)'과 같은 호칭들은 아내나 어머니라는 가정 내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개별 인격체의 품성과 사회적 공로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특히 남편이 아내를 '지기(知己)'라 칭한 사례는 주목할 만한데, '내조'가 여성의 보조적 위치성을 함의한다면, '지기'는 동등한 위치에서의 상호 협력을 인정하는 표현이다.[16] 현모양처 형상은 여성상의 드넓은 스펙트럼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전통적인 여성이 해냈던 다양한 일 중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사용하는 '전통적'이라는 표현은 실제 한반도 여성의 전통적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이름으로 포장한 여성성의 착종'의 의미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기사의 문장 배치 방식에서도 구조적으로 드러난다.

---

14 황빛나, 「'현모양처'의 탄생 이후, 이미지는 어떻게 여성의 삶을 통제해 왔는가?」, 『한국문화연구』 36권, 2019, 291-301쪽 참고.

15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16권 1호, 2000, 41쪽.

16 최기숙, 『이름 없는 여자들 책갈피를 걸어나오다』, 머메이드, 2022. 19-48쪽 참고.

> 한국통신에 최초의 여성국장이 탄생했다. 한국통신의 이영희(李英姬)(이영희·38) 서울전자교환운용연구단TDX지원1부장은 13일 단행된 인사에서 이 연구단 운용지원2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이(李)씨는 남편 역시 한국통신의 현역 국장이어서 ,「한국통신 최초의 부부국장」이란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지난 92년 국장으로 승진 , 현재 기업통신지원단 마케팅지원국장으로 있는 임순철(林淳哲)씨(임순철·40)가 남편. 국민학교 6학년 , 3학년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두고있다.[17]

이영희는 15년간 서울영동전화국 기계부장, 연구개발단 교환방식 연구실장 등을 거쳐 벨기에 브뤼셀대학에서 전산학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전문 기술 행정가이다. 기사 전체 글자 수 1,155자 중 가족 정보를 담은 언술이 약 22%[18]를 차지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문장의 배치 방식이다. 기사는 이영희 본인의 소감이나 업무 역량보다 앞서 남편 또한 한국통신 국장임을 먼저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도 "임순철씨가 남편. 두 아들을 두고 있다"로 마무리함으로써 최초 여성의 전문적 성취가 구조적으로 가정 내 역할 정보 사이에 끼워진 형태가 된다. 그 공간만큼 이영희 그 자체에 대한 담론은 생략된다.

또한 한국 여성 최초의 1급 공무원 신태희를 다룬 두 편의 기사[19]는 이러한 구조가 개별 기자의 성향이 아닌 언론 담론의 관습적 틀임을 보여준다. 1996년 기사(기자 최원규)와 1997년 후속기사(기자 김태훈)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다른 시점에 작성했음에도 문장의 배치와 내용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 65년 5급 특채로 임용되어 27년간 청소년과장·시민과장·가정복지국장을 역임하며 최초의 1급 공무원에 오른 신태희에게 기사가 처음으로 건네는 칭찬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그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세 아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여성의 역할도 잊지 않았다." 후속기사는 더 나아가 그를 "바쁜 와중에도 세 아들을 훌

17 이미경,「한국통신 여성국장 1호 이영희(李英姬)씨」,『조선일보』, 1995.01.14. 조간 33면.

18 기사 전체 글자 수는 1,155자이며 그중 가족 정보를 담고 있는 글자 수는 262자로 전체의 22.68%를 차지.

19 최원규,「첫 여성 1급공무원 탄생」,『조선일보』, 1996.01.14. 조간 30면; 김태훈,「최고참 여성공무원으로 정년퇴임」,『조선일보』, 1997.06.26. 조간 21면 두 기사 참고.

륭히 키워내고 시어머니를 100세가 넘도록 극진히 모신 현모양부(賢母良婦)"로 명명한다. 심지어 1996년 기사에서 신태희 스스로가 "아내·며느리·어머니의 역할을 모두 해야 하는 슈퍼우먼이 될 것을 요구받는 직장 여성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이 압박을 비판했음에도, 후속기사는 동일한 담론 구조를 반복한다. 최초 여성의 공적 성취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기사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가정 내 역할을 필수적 정보인 양 배치함으로써 그녀의 성취가 현모양처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해야만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담론 구조를 재생산한다.

3.2 공적 역량을 가정의 역할로 치환하기

전통의 시선은 단지 가정 정보를 병기하는 수준을 넘어, 여성의 공적 역량 자체를 가정적 역할의 언어로 치환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중앙부처 최초의 여성 1급 공무원 김송자 노동위원장을 다룬 기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 〈근로자의 아픔을 모성애로 감싸되 공정성과 합리성을 잃지 않겠습니다.〉…부하들의 고충처리에서는「어머니」, 후배 여성공무원들에게는「대모(대모(代母))」로 불린 김 위원장은 전문노동행정가.[20]

김송자는 고려대 법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전화교환원 정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낸 전문 노동 행정가이다. 이러한 핵심적 성과들은 기사 후반부에 짧게 언급될 뿐이며 '모성애', '어머니', '대모'라는 가정적 역할의 언어로 치환된다. 동시기 남성 고위직 임명 기사와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욱 선명하다. 같은 1990년 말, 남성인 박노증 법원공무원교육원장과 유재만 함경남도 지사를 다룬 기사는 각각 업무 역량·직책·경력만을 서술하며 가정적 역할 언어를 일체 포함하지 않았다.[21]

---

20 이거산,「중앙부처 여성공무원 처음으로 1급 승진」,『조선일보』, 1998.07.09. 조간 20면.
21 김홍진,「법원공무원 교육원장 박노증(朴魯增)씨」,『조선일보』, 1997.06.26. 조간 2면;

이 치환은 여성의 직무 범위를 '여성적' 분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 위의 김송자의 기사에서는 '노동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직무를 행하는 그의 성과를 여성 근로자 문제에만 집중시켰다. 위의 신태희가 맡은 '청소년과장', '시민과장', '가정복지국장'이 모두 가정·돌봄과 유관한 분야로, 여성 공무원의 직무 자체가 핵심적이며 선진적인 고위직이나 중심 분야가 아닌 사회에 '적당히' 공헌하면서도 가부장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을 정도의 범위 안에 배치된다. 이어서 언론은 그 배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구조적 불평등을 비가시화한다.

4 남성 표준으로 여성 담론화하기

4.1 남성 독점과 여성 배제의 정당화

'최초의 여성' 관련 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의 성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산정한다는 점이다.

> 보급효과면에서 여성 기사 1명은 남성 10명 몫을 해낸다는 말도 있거니와, 현존 유일의 여류기전인 이 대회엔 19명의 국내 여류가 총 출전 중이다. … 남성 기사들조차 둘의 맞대결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인다… 뭇 남자들 틈에서 12승 11패를 거두며 최근엔 삼성화재배 예선 결승까지 오를 만큼 기세가 무섭다.[22]

"여성 기사 1명은 남성 10명 몫"이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여성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가치가 남성과의 비교를 경유해서만 산정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내포한다. "남성 기사들조차 큰 관심을 보인다"는 표현은 남성의 인정이 여성 성과 평가의 주요 척도임을 암시하며 여성을 보편적 인간

「함경남도知事 劉在萬씨 함경북도知事 南星寬씨」, 『조선일보』, 1999.07.13. 조간 2면 두 기사 참고.

22 이홍렬, 「여류바둑 쌍두마차 격돌」, 『조선일보』, 1998.08.13. 조간 11면.

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차적 존재로 위치 짓는다.

> 얼음판에 서있기조차 아슬아슬했던 윤양이 중학생 포함 모두 50여명 되는 클럽선수 가운데서 중간급 플레이어로 성장한 것은 남자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오기'가 발동했기 때문이다. 남자선수들과 부딪치면 넘어지기 일쑤지만 퍽드리블은 오히려 웬만한 남자선수보다 낫다는 것이 강코치의 평이다.[23]

윤인수의 기술적 성취에 대한 유일한 긍정적 언급은 "퍽드리블은 오히려 웬만한 남자선수보다 낫다"는 한 문장뿐이며 이 칭찬조차 남성 선수와의 비교를 경유해서만 성립한다. 주목할 점은 이 문장 앞에 "남자선수들과 부딪치면 넘어지기 일쑤지만"이라는 단서가 선행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기에 앞서 먼저 신체적 열등함을 확인하는 이 서술 순서는, 여성의 성취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남성 표준이 얼마나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사에서 반복되는 남성 독점의 강조와 여성 배제의 논리는 관계 쌍으로 작동한다. '금녀의 전당', '금녀의 벽', '남성들만의 전유물', '사나이 스포츠', '남성 전담 분야', '남자들만의 독무대' 등의 남성 독점 영역 강조 언술은 해당 직종에서 여성의 배제를 공고히 한다.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식(式)의 낡은 사고방식(思考方式)에서가 아니라[24]
>
> 여자들이 쓰개치마를 벗지 못하고 길에서 남자와라도 마주칠 때면 한옆으로 길을 비켜서야 했던 해방조국에서 여성의 사회역할을 강조해 온 선각자였다[25]

---

23 김주호,「아이스하키 "첫 여자선수"」,『조선일보』, 1990.11.24. 조간 14면.

24 홍일점(紅一點) 법관(法官)도 벌써칠년(七年) ,『조선일보』, 1960.11.06. 석간 4면.

25 김창기,「한국(韓国) 최초 여기자(女記者)"집념의 유산(遺産)"「최은희(崔恩喜) 여기자상(女記者賞)」제정」,『조선일보』, 1983.05.12. 조간 11면.

여자는 뱃전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고, 더구나 선원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26]

승객들이 창문으로 여성 기관사를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볼 때는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다.[27]

이 인용들은 각각 1960년, 1983년, 1985년, 1996년에 발행된 기사에서 추출된 것으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성 배제의 언술이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었음을 보여준다. 남성 독점의 영역임이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고 나면, 그 영역에 진입한 최초의 여성은 '외부인' 또는 '침입자'로 여겨지며, 남성의 영역에 대한 공격이나 와해로 인식된다. '남자에 뒤질세라', '남성 후보들을 제치고', '남녀 성대결', '남성 얼차려주는 맹렬 여성', '남자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오기' 등의 표현들은 이 인식 구조를 반복적으로 강화한다.

"이제는 여남차별이 아니냐"[28] 이러한 작용의 귀결로, 최초의 여성 은행 지점장이 단 한 명 등장한 것을 두고 남성 동료가 사회가 마치 여성 중심주의로 바뀐 것처럼 '여남'이라는 조어를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일부 사립 명문대에서는 어문계를 비롯한 특정학과 80% 이상을 여학생이 차지하자 '이러다 여자대학 되겠다'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다."[29] 이러한 문장은 단순히 개인의 불만 표출이 아니라, 수십 년간 '최초의 여성' 담론이 누적적으로 구성한 남성 독점 정상화의 논리가 역전된 피해의식으로 표출되는 구조적 현상이다.

4.2 남성에게 허락받는 여성의 위치성

'최초의 여성'의 업적이 남성의 권유·지원·허락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서술되는 방식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998년 기사는 최초 여성 장관의 등장을 다음

26 「국내 첫 여성선원(船員) 3명 탄생」, 『조선일보』, 1985.11.20. 조간 11면.

27 최원규, 「첫 여성 지하철기관사 안성숙(安成淑)씨 "최초 아닌 최고 될래요」, 『조선일보』, 1996.01.05. 조간 36면.

28 「첫 여성(女性) 은행 지점장 장도송(張都松)씨」, 『조선일보』, 1981.10.30. 조간 6면.

29 정재연, 「"절반의 몫을 찾자" 인습의 굴레 벗어"」, 『조선일보』, 1999.12.29. 조간 37면.

과 같이 서술하였다.

> “김 대통령 당선자가 18일의 TV대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을 만들고, 새 정부의 조각 때 여성을 장관직에 상당수 기용하겠다’ 고 말해, 여성장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30]

이 기사는 최초 여성 장관의 등장을 남성 대통령의 공약 이행으로 귀속시키면서, 장관 후보에 오른 여성의 발언과 서사는 완전히 배제하였다. 여성 장관의 탄생이 여성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남성 권력자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프레이밍되는 것이다. 동일 사건을 다룬 다른 기사에서도 여성 후보 임명을 두고 논쟁하는 남성 의원들의 발언을 서술할 뿐, 해당 여성 후보의 발언이나 의견은 끝까지 언급되지 않는 패턴이 나타난다.

> 9대국회의 연장자는 72세의 신민당 정일형 의원. 야당이며 때로 강경 발언을 하여 주목을 끌었던 정 의원의 임시의장취임은 많은 관심을 끌었으나 건강이유로 입원을 했다는 것. 그래서 사회봉이 여당이며 여성인 이 의원에게 넘겨졌다[31]

여성 의원 이숙종이 국회본회의 사회봉을 최초로 잡게 된 것이 원래 사회를 맡기로 했던 연장자 남성 의원의 입원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 서술되고 있다. ‘최초’의 역사적 순간이 여성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남성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우연적 사건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기사는 이 의원에 대한 묘사를 옷차림과 “음성이 작다”는 것에 그쳤으며, 이 의원의 발언은 기사 끝까지 단 한 차례도 인용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권유로’, ‘아버지와 상의 끝에’, ‘남편을 졸라 지원’ 등의 언술이 반복되고 이는 최초 여성의 진출이 남성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인식 구

30 김만배, 「여성(女性) 3~4명 입각(入閣) 가능성」, 『조선일보』, 1998.01.20. 조간 6면.
31 「최초로 여성의원(女性議員)이 사회(司會)」, 『조선일보』, 1976.03.13. 조간 2면.

조를 반복 재생산한다. 권유·허락하는 아버지는 자주 등장하는 반면 어머니의 역할은 누락되는 패턴은, 실제로 존재했을 여성의 영향력을 담론 수준에서 삭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업계가 여성을 과연 얼마나 고용해 주느냐가 앞으로의 관심거리'와 같은 서술 역시 최초 여성의 등장이 남성 집단의 허용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재생산한다.

5 여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양가성과 딜레마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불평등한 대우는 능력의 차이로 설명되며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환원된다. 이른바 '교두보 역할 프레임'은 여성 1호가 다른 여성들의 진출을 위한 발판이자 희망을 제공한다는 틀짓기로,[32] 겉으로는 긍정적 평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구조적 차별을 개인의 노력 문제로 환원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최초 여성의 능력을 우상화하여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다른 여성들의 능력 부족을 암시하거나, 최초 여성의 노력이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언술의 반복이 그 예시이다.

> "행정고시는 사법고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아, 여성 최초로 전재희씨가 73년 행정고시의 관문을 뚫은 이후, 작년까지 여성합격자는 모두 5명에 불과했다."[33]

기사의 제목이「능력대로 평가받고 싶어요」임에도, 기사 본문은 합격자 수가 적은 원인을 여성 개인의 관심과 참여도 부족으로 귀결시킨다. 여성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사회적 요인은 기사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능력주의의 언어로 포장된 이 서술은 구조적 불평등을 여성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여느 여성들과 달리 그녀는 운전 분야를 지원…적극적인 성격"[34], "어째서

32 조연하·김경희·정영희, 앞의 논문, 183쪽.

33 신세미,「능력대로 평가받고 싶어요」,『조선일보』, 1985.12.03. 조간 6면.

여자끼리는 저렇게 융화가 안 되는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35] 이 두 문장은 각각 최초 여성을 여성 일반과 분리하고, 개인의 특성을 여성 집단 전체의 특성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여풍’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성의 성취를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그 지속성과 구조적 의미를 지운다. ‘풍(風)’이라는 표현 자체가 내포하는 일시성은 여성의 공적 참여를 항구적인 사회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담론적 저항을 암묵적으로 내장하고 있다.

최초의 여성에게 여성 전체의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서술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36], “장 소장은 자신이 여지점장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느냐 못해내느냐는 바로 3만 여행원의 지위 향상과 연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여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이 벅참을 느끼지만 자신만만하다고 활짝 웃었다”[37] 이 두 서술은 소수자에 대한 일반화를 통해 한 여성의 성패를 여성 전체의 역량 문제로 귀결시키는 논리를 구조화한다. 여성 개인의 실수나 한계가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반면, 남성 개인의 실패는 남성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서술 구조는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양성평등사회 구현의 책임을 여성 개개인, 특히 어떤 성과를 이루어낸 1호 여성에게 돌리는”[38] 담론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6 결론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최초의 여성’ 관련 기사 188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시기 언론 담론이 여성 주체를 어떠한

34 최원규, 「첫 여성 지하철기관사 안성숙(安成淑)씨 “최초아닌 최고 될래요”」, 『조선일보』, 1996.01.05. 조간 36면.
35 최환, 「10만주민(住民)의 친절한「이웃 아줌마」」, 『조선일보』, 1982.03.07. 조간 6면.
36 차학봉, 「서울시(市) 첫 여성 부(副)구청장 탄생」, 『조선일보』, 1998.08.12. 조간 15면.
37 「첫 여성(女性) 은행 지점장 장도송(張都松)씨」, 『조선일보』, 1981.10.30. 조간 6면.
38 조연하·김경희·정영희, 앞의 논문, 183쪽.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동시에 제한해 왔는지를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 안에서 규명하였다.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한 온화함, 섬세함, 가정성이라는 전통적 여성성의 기표들은 여성의 성취를 남성과의 비교 구도 안에 배치함으로써 이를 주변화하였다. 이러한 수사적 전략은 여성 주체성에 대한 인식론적 공백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았으며, 수사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배분하고 주체를 위치 짓는 권력의 형식이었다. 여성의 독립적 성취는 가정 내 역할과 병치되거나 전통적 가치 체계에 종속된 형태로 재맥락화되었고, 이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이념을 재생산하는 담론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최초'의 성취는 종종 '그럼에도 여전히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문장으로 귀결되었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한 것은 기사에 '쓰여지지 않은 것'이다.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와 자기 서사가 체계적으로 생략됨으로써 성차별적 담론은 가시적 억압 없이 작동할 수 있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축적이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생산한다는 사실은, 담론 연구가 텍스트의 표층만이 아닌 침묵의 지형도까지 읽어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최초의 여성' 담론은 시기적 변화에 따라 점차 다양화·구체화되었으나, 전통적 여성상의 규범적 틀은 견고하게 유지되었고 여성 주체성의 온전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유예되었다. 담론의 점진적 변화가 구조적 변혁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언론이 여성을 '최초'로 호명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젠더 권력의 작동임을 이 연구는 드러내고자 하였다.

'최초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 1호의 삶을 살아온 여성 개개인의 경험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여자에 대해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39] "결국 우리가 의거해야 할 곳은 여성적 주체들의 경험이다. 그것은 너무나 흔한 동시에 예외적이기에 결코 환원 불가능한 경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절묘하게 배합하고 있는 독특한 경험, 치열한 분석 과정을 통해 접근되지만 끝내 분석 불가능한 것의 가장자리에 닿아 있는 경험이다."[40] 그러나 1960~1990년대 언론 기사는 지극히 독특한 개인의

39 박영진, 앞의 책, 28쪽.

경험을 '최초의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 묶어 버렸다. 때문에 그들의 긴 스토리는 화제성을 가진 일회성의 기사로 취급되었다. 동시에 각기 다른 스토리는 40년간 유사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 기사의 반복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잘 말하는(bien dire) 공간"[41]을 여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최초의 여성' 기사가 반복적으로 생산된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이 여전히 진출하지 못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의 반증이다. 마찬가지로, '최초의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칭찬이 기사에 반복될 때, 그것은 공적 성취를 이룬 여성에게도 돌봄노동이 여전히 강요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이는 '최초의 여성' 담론이 사회 안에서 온전히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성 주체성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담론 구조의 구축이 요청되며, 전통적 가치 체계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여성 1호'의 경험은 비로소 현대 사회의 성평등 담론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박영진,『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고, 2022, 4-30쪽.

최기숙,『이름 없는 여자들 책갈피를 걸어나오다』, 머메이드, 2020, 19-48쪽.

Norman Fairclough, 김지홍 역,『담화 분석 방법』, 경진, 2012, 17쪽.

논문

김현미,「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한국여성학』16권 1호, 2000, 37-64쪽.

40 위의 책, 4쪽.

41 "하나의 문제적인 공백으로 남아 있는 여성성(iemmelite)을 정신분석적으로 윤리적인 말하기에 결부시키는 것이다. 즉, 한 명 한 명의 여자가 스스로의 독특한 진실에 대해 잘 말하는(bien dire)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위의 책, 30쪽.

조연하·김경희·정영희,「'여성 1호'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보도의 프레임 연구.」,『방송과 커뮤니케이션』7권 2호, 2006, 166-195쪽.
허명숙,「전문직 여성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미디어, 젠더 & 문화』7권, 2007, 5-45쪽.
황빛나,「'현모양처'의 탄생 이후, 이미지는 어떻게 여성의 삶을 통제해 왔는가?」,『한국문화연구』36권, 2019, 291-301쪽.
Robert M. Entman,「*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ume 43, Issue 4, 1993, pp. 51-58.

인터넷 사이트
2020년도 종편-케이블 방송사업 겸영매체 발행·유료부수, 한국ABC협회.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42]

42 분석 대상 기사의 전체 목록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참조.